

함께하는 2022년 마지막... 음악 무대로 힐링

도립제주·서귀포예술단 이달 22일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 기획공연도

2022년의 마지막 달이다. 한 해를 마감하며 지역 청중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또 내년을 기약하며 제주도립 제주예술단과 서귀포예술단이 이달 22일 각기 다른 빛깔의 송년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열리는 만큼 연말, 힐링을 위해 온 가족 함께 공연장 나들이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시민과 함께하는 베토벤 '합창' =도립제주예술단은 송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인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으로 2022년의 마지막을 채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앞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일반 시민합창단과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이날 제주아트센터(오후 7시30



지난해 열린 서귀포예술단 송년음악회.

분부터)에서 펼쳐질 공연은 소프라노 서예은,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테너 박지민, 베이스 김성국이 협연하며 제주합창단, 시민합창단, 제주대학교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관람 신청은 사전 온라인(제주예술단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연말, 희망찬 선율 노래=도립서귀포예술단 송년음악회는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오후 7시30

분부터)에서 진행된다.

함께하는 연말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서귀포합창단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문을 연다. 합창단은 이번 송년음악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이민정 편곡의 '크리스마스 모음곡'도 선보인다.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주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음''의 특별무대도 예정돼 있다.

2부에선 서귀포관악단이 선사할 화려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은 서귀포관악단과 합창단, 하음오케스트라 전출연진이 함께 르로이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음악 메들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연주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 사전예약은 서귀포시 E-Ticket에서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 콘서트=제주아트센터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을 준비했다. 이달 24일 오후 2시 제주아트센터 로비에서 펼쳐지는 '아트제주 익스프레스: 캐럴'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대중들에게 익숙한 캐럴을 다양한 형태로 만나볼 수 있게 기획한 공연이다.

이날 마술사 레이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프라임타악기양상봉, 클럽 노래하자 춤추자, 아르모니아인 제주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며, 자유좌석제로 운영된다.

문화예술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다

오는 16-18일 2022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새로운 가능성 공유... 오픈워크숍·대담 등 다채

다양한 주제가 문화예술로 소통·교류하는 문화예술플랫폼 행사 '2022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제주시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과 픽스커피 화북공단에서 열린다. 제주도 주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회째 열리고 있다.

올해 주제는 '미래를 위한 실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우리의 실천'이다. 소주제는 인간과 미래, 협업과 창조,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이다. 행사 기간 강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는 오픈워크

숍, 포럼, 대담, 라운드테이블, 움직임의 책방, 특별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미래를 모색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꾸리게 된다.

첫 번째 소주제 '인간과 미래'에서는 인간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엿볼 수 있는 실천적 사례들이, 두 번째 '협업과 창조'에서는 예술과 기술, 예술과 사회, 분야별 융복합 등의 협업을 토대로 전시, 교육, 공연,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간과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례들이 소개된다.

세 번째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에서는 인류가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과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스스로 미래를 바꿔나가는 예술 행동과 실천에 대해 공유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현재 시대적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주제들로 세션을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문화예술 흐름을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적 담론을 끌어내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우선 모집하고 당일 현장에서도 별도 참여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참고.

오은지기자

영상으로 만나는 발레 지젤 이달 26일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는 이달 26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썩 온 스크린) 사업 '지젤(Giselle)'을 대극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한다.

'지젤'은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의 공연 영상으로, 순박하고 명랑한 시골 소녀에서 사랑의 배신에 몸부림치는 광란의 여인 '지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연 후 1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낭만 발레의 대표작이다. 총 2막으로 구성된 '지젤'은 '월 페로'와 '장 코라이'의 안무로 184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올려졌다.

관람료는 무료다. 지정좌석제로 관람 희망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겨울 산책, 그림과 함께... 전시 풍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작가들의 개인전도 이어지고 있다. 전시장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서두르자.

▶이미성 개인전 '기억의 풍경: 제주'=이미성 작가가 7년 만에 여섯 번째 개인전을 열고 '기억의 풍경+a' 작품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장지와 비단이 일정한 간격을 둔 채 한 화폭에 겹쳐지는 '기억의 풍경+a' 작품 시리즈는 주로 장지에 먹으로 연하게 채색을 한 뒤 비단을 덧대는 방식이다. 마치 안개가 낀 듯 흐릿한 기억이지만 강렬하게 다가온다.

작가는 "작품에 등장했던 인물은 주로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나의 모습이기도 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초상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고뇌와 정서적 소외 등을 고민하고 시대적 자화상을 표현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시는 이달 14일까지며, 아라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김초은 글씨전 '틈으로부터'=네 번째 개인전이다. 앞서 획이 가지는 관계성에 집중했던 김초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획의 관계성에서 또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찾는 것으로 시야를 확장했다. 작가는 문자의 규칙적 조형성을 뒤엎어 틈을 만들고, 그 틈에서 공간의 자유로움을 발견해 낸다. 전시는 심헌갤러리에서 진행중이며, 이달 15일



이미성 작 '기억의 풍경+a'

까지다.

▶나현정 개인전 '환생섬'=나현정 작가가 관객들에게 건네는 '삼승함방, 환생섬'은 서천꽃밭에 환생이라는 또 다른 탄생을 결부시켜 생명의 존엄성을 부각한 판타지 동화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림자 작업과 종이조각 작업을 더 다채롭게 보여주는데 주목했다. 조명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자 외에 그림자 자체를 콜라주에 접목하고, 환생 섬에서 뛰노는 캐릭터들의 배경으로 사용했다. 빛에 의해 보이는 그림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림자 형상이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자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전시는 제주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이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이동용,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이달 15일 문예회관서 독주회

제주 피아니스트 이동용(사진)이 이달 15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독주회 무대를 갖는다. 올해 공연엔 프란츠 슈베르트(1797~1828)의 음악을 선곡했다.

이동용은 이날 슈베르트의 '4개의 즉흥곡, 작품번호 90'과 밝고 소박한 서정성이 돋보이는 '피아노 소나타 op.120', 그리고 '방랑자 환상곡'을 차례로 들려줄 예정이다. '방랑자 환상곡'은 슈베르트가 1822년 작곡한 20대의 열정이 담긴 곡이다.

그동안 열일곱 차례 독주회를 열었던 이동용은 듀오 연주, 실내악을 포함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 보 피아노 듀오 리더이며, 제주건반예술학회 부회장,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공연은 코로나19 상황 악화시 비대면 공연으로 제주 보 피아노 듀오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 /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날개 달린 품격여행

예약폭발
마감임박!

<p>01 동경 3박4일</p> <p>·12/31 연말특집 전세기 (나리타, 오다이바, 요코하마)</p> <p>990,000원</p>	<p>03 베트남 다낭 3박5일</p> <p>· 12/30 출발</p> <p>1,090,000원 -5성급 에어빌 1,290,000원 -5성급 관광패키지</p>	<p>04 필리핀 마닐라</p> <p>· 1/22, 1/24, 4/6출발</p> <p>*관광 : 1,250,000원 *골프 : 1,290,000원(54홀) *항공권 : 690,000원</p>
<p>02 오사카 3박4일</p> <p>·12/22 출발</p> <p>899,000원</p> <p>·1/5, 1/12, 1/16, 2/16 출발</p> <p>999,000원</p>	<p>05 타이페이/화년/야류 5일</p> <p>· 12/24 출발</p> <p>899,000원</p>	<p>06 세부 3박5일</p> <p>· 12/15, 2/24 출발</p> <p>4성급 관광-1,090,000원 5성급 관광-1,290,000원</p>
<p>07 방콕/파타야 3박5일</p> <p>· 매일 출발 ·4명이상 출발</p> <p>750,000원~ 패키지 1,190,000원~ 골프텔</p>	<p>08 나트랑/달랏 3박5일</p> <p>· 2/22 출발</p> <p>1,290,000원</p>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일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